

論諸道臣綸音





論道道臣綸音

綸音右曰今朝卽予誕彌之辰也仰而祝  
慶是年愈深俯而祈永是日愈執乎是日是

年惓惓於為生民懷保之心為愈切焉者何  
者諸路穡事七月旱八月風勃然者靡非然近  
海門數十里地水之所蕩濶禾稼綿絮皆為  
之鹹鹺望哺之民情不待收獲庶能領畧自是  
以後其謂予食甘而寢安否耶予為民父母  
於其拯之濟之救之活之又從以安奠之策所

夕念茲跬步念茲紓吾民力裕吾民財之諸般  
云為方寸之間憧憧往來誠之所到且誘之金石  
氓雖蚩蚩亦孔之神意者一點靈犀照遍八方  
然朝廷自有格例擬待道伯之分等陳聞將  
有以措處而近聞於筵臣諸路道臣以明年之  
異於他年不敢議到於調賑二字云何其昧於  
道理乃甫明年即朝家千載一值之無前慶  
會也凡所以與吾民同其樂者顧何如也為我  
殿宮呼嵩而稱慶進蹕而聞義奉觴而上

壽當是時也使彼上所謂望哺之百萬生靈不  
飢不寒四顧伊笑欣欣然相慶於遠通都屋  
之下然後 昔年曠德暨 慈覆履陰功始可  
曰一分宣揚亦可以有說於 親心為心邦本為  
本之至意也祝慶在此祈永在此此理皎然明  
甚天保九如之詩古人所以頌祝君父者而必曰  
君年於百姓徧為爾德鄰聖之責難於君亦  
必曰獨樂樂孰如與眾樂樂而今之人之引君  
當道何如是一切相反也若使彼說得行不能

盡力於備豫之道致有匹夫匹婦之失所殞  
尾焉用方伯守宰為哉諸路道臣咸湏諱恣  
詳加聰察於民情緩急苟其至窮無依豈  
自活者冬而計口抄飢春而發倉賑之其各準  
式而為雖然賑之不以道是不賑也竊觀年  
來賑規太半是料販將無作有有似乎幹局  
而考其中則流毒平民貧富俱困予則曰料  
販之害甚於蔽荒今番則賑績雖冠於一路  
其跡絲毫涉於料販而舞弄者該邑守宰不

問多少當從贓污之律懸法象魏固敢或干  
勤與不勤犯與不犯欲使衣繡之帟不路執  
斧而行勉之哉日前以母或諱災另飭諸道  
而餘意亘中又此申申還穀身布之不得不  
停退者不得不代捧者細量民勢分等啓  
聞此疆甬界之區分莫要於抄戶矧在明年  
允合均施預令當賑處小大民人知此初勿挈  
之四以待調賑之期含哺如樂歲同我太平民之  
不飢是予之飽民之不寒亦予之煖民之不飢

不寒是之謂上瑞朝將承安於殿宮整衣  
待曙先敷十行於御等

乾隆五十九年九月二十二日

觀察使兼巡察使為知委事今年穡事  
四旬亢旱實是罕有之災兩日瘴風遂判  
大無之境

宵旰之憂不弛於靜攝日月之明無遺於  
遐邇乃於虹流之辰尤軫鶴形之民浚發  
十行恩綸昭示諸路臣庶賑濟之不先狀



請深責道臣之諱災蠲減之各有等不全  
付守土者抄戶俾彼節屋編氓同樂於  
大慶之年猗歟

聖德有足以浹人肌髓孚及豚魚矣猥忝宣  
化之任方思殫竭對揚庶不負 德意而  
曉諭之方且先周遍使深鄉僻村蠢民愚  
婦咸知明年之異於他歲 特恩之出於廣  
慶然後方可以小塞分憂之責而為慮傳  
寫之或訛茲用付梓而印出頒諸州縣遍

示坊曲其各戶說而家諭咸令常目而騰  
口奉行勤慢從當考察並須惕念知悉  
舉行宜當向事



부름이이러니시오리사도오천악을이뵈  
 나의관신날이라우러러정스을발미이  
**이**티옥고구버년월발미이정  
 티옥치구하니이날이히와싱미이월의하  
 녀회보하느니이관천중여더우간철  
 하자느엇지요제도농스칠월가올과팔  
 월바름의발연흔지미연하히문갓가이  
 수잡니따히을의흔들고써흔바위벼와  
 면화다차쳐죄로이미되니머가물바라

근인정음이유화 휴유려한 을기느리지아나흐

다거의능히형 말씀이라 냐 말씀이라 는지라 이르노부

터허후로그버음식이달피잠이편흐다

이트랴아니라 버섯의부외되야그건

지고건니고구흐고사라고도쫓쳐편

안이전거홀모척이도척의이를싱각흐

고반거름의이를싱각흐야 버섯의힘

을누기고버버섯의지를남기히 한

갓도리를방촌 한음이라 스 한음이라 이의동음기 한음이라 의왕의

고공을 만  
말승이라 함  
니 저 영의 이른바 의 장 초 금 벽을  
활을 저니 빈 형이 비록 어리나 또 한 심히  
신 통 응 하니 뜻 한 건 덕 흠 점 녕 처 망음의 팔 방  
의 비 회 어 두 루 흘 지 라 그 러 나 또 쥘 이 스  
스 로 적 네 이 시 니 도 빈 의 분 등 응 야 배 퍼  
를 니 물 지 드 러 장 초 씨 구위 초 구위 호 미 이  
실 니 나 요 스 이 연 신 의 게 드 르 니 제 도 도  
신 이 명 년 이 다 른 히 와 다 르 므 로 씨 감 히  
진 흥 팔 두 스 에 의 논 응 야 이 르 지 못 응 단 응

너엇지그도리를모르미이라흐도평은  
이곳도가의천히의흔번만나느천의업  
노칭스라무릇써내빅형으로더부러그  
슬기말흔가지로흔받재도라보건의엇  
더흐프우리 천공을위하야송<sub>천제</sub>을  
블너평스를일것고호호<sub>조조</sub>을나와아름  
다음을나토고잔을받드러수을을너너  
이척을당하야적우희일은바머기물바  
라느백안성<sub>백안성</sub>이<sub>이</sub>로하야금쥬리도

아니고 참보도아니하니. 칭거물을도도도아  
우쳐흔: 이쳐로일고갓가온초우아러  
경스흔연후에 석년의성덕과 조애  
로단남흔신음공이비로소가히고르되일  
분배퍼션양<sup>또양의관</sup>발<sup>발</sup>송<sup>송</sup>의<sup>의</sup>라<sup>라</sup>하<sup>하</sup>고또흔가히히천심  
이로로이음을상고방본오로근본을상느  
지극흔뜻의깃부미이실지라경스를발  
이이에잇고녕년을일히이이에이치이나  
표연아밝기상흔니천보구여시느넷사

름이 써 군부를 총추는자로 된반도 시  
로 된 모든 백성이 두루 네 덕을 위하느다  
호추성이 님군게 칙난하 애호하반도 시  
마른 사된을 노하느 풍뉴의 즐거오미여  
러호로 더부키하느 풍뉴의 즐거음과 취  
갓승려하시니 이제 사음의 님군을 인도  
하야 도의 당케 하느 은엇지 일철의 상반하  
고만 일적알노하야 근히 응을어 더능히  
에 비하느도리의 힘을 다하느 지 못하야 필





귀신이 허반이나 이요 판 은달은오 이라 어부

를 가취이시물 지어 간국의 비스승나 그속

을 상고하느주 평인의 도인 후물비 휘다 판

하나 나 너스근의 표판의 허기 후물비의 서심화

하나 나 이번 인주진 후물하공이 비록 일도어 으뜸

하나 그자 초실과 허를 만치나 표판하야 뒤돌나

는티 가선부하차는 허음수적 을 다 쇼을

못지 아나 코마스당 이 랴장범이므로 쫓

를 거시나 상 위 이대월 의 범은 다 근의 감히

범치 못함을 지라 근하고 다 못근치 아님과  
범하고 다 못범치 아니물 슈납은 범으로  
어수한  
말씀 하야 금길을 난화도치를 잡아 하야  
적하야 니 힘쓸지 어 다 일전의 후주지 양을 거  
이 지 말므로 써 제도의 각별 신칙하고 나  
문쓰지 등심의 벗쳐 또 이리 신신하야 니  
환곡과 신포의 마지 못하야 정퇴함을 자와  
마지 못하야 대봉함을 자와 세히 박성의  
형세를 헤아려 분등하야 계문하고 이지

경. 적지경. 구벌함. 야난호미 초호만치 증  
요로오미 업스니 함물도 명천이려늘고  
도로베포미 맛당함지라 미리응당진함  
함코의 소러 민인므로 함야금이 꺾을  
알아 일철이 안고 잇그러 스방의 가지 알  
고 써진함함근의 약불기드려고고비부트  
물낙채 갖치 함야우러히 평을함차자로  
함게 함라 비성의 쥬리지 아니의나 의비  
부르미 요비성의 치지 아니미도함나의

더오미니빅성유리지아니고침디지아니  
미이니론으스름샹셔라아츨의장츙츙  
궁의문안을밖들테흐야옷슬정체흐야  
새기을기드림디먼저정등의게십함을  
폐노라

건흥오십보구년구월이십일이러

Handwritten text on the right margin, including a large character resembling 'ハ'.

Main body of the page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handwritten text, which i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